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순교자기념주일입니다.

평화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평화교육이 29일(토) 오후 2시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오상열 목사(기독교평화연구소)입니다.

이준하 씨와 전사랑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29일(토) 오후 5시 남산제이그랜하우스 제시가든에서 있습니다.

단양의 친환경 마늘을 예약 판매합니다. 2kg 25,000원, 3kg 35,000원, 4kg 45,000원입니다. 6월 말까지 예약 받고 7월 중순에 판매합니다.

스마트폰, 텔레비전, 에어컨 등 전자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요즘입니다. 전자기기 사용시간을 의도적으로 조금씩 줄여 가시기 바랍니다.

왕상 19:1~15a / 시 42
갈 3:23~29 / 록 8:26~39

갈 2:11-16

식 당 봉 사 : 최경미 공재량 강금연 박윤숙 김선영 이오복 이기분 조장형 다음 주 식당봉사 : 김윤정 조병주 김현영 최은미 박시내 이영아 백묘현 윤성중 오늘설거지봉사 : 이종배 고정림 김용훈 조희선 오지은 다음 주 설거지 : 두란노 2속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청파교회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분주한 일상과 무더운 날씨로 쉽게 심신이 고단해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자꾸만 처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하늘의 생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여름의 자리에서 가을의 결실을 내다보며 기꺼이 땀을 흘리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동족상잔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서로를 향해 겨누었던 총부리 아래에서 무고한 생명들이 수도 없이 죽어갔습니다. 그 고통과 원한은 한반도 곳곳에 깊이 스며들어 있고 아직도 씻기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인식 김정숙 강찬양 고숙이 권미숙 김근종 정옥영 김남종 오복순
 김성우 박유경 김용길 최영혜 김용진 박효선 김용태 박정숙 김정민
 이해령 김준호 박해자 김현주 김희진 박홍재 박영희 박인혁 박준희
 이기분 배부례 변재민 이소혜 성지현 송형철 양상철 박재란 유상진
 유은정 윤수진 이국노 김민화 이상재 이증자 김창경 이현순 임주빈
 최현옥 장근성 박희순 정수복 장미란 정완수 김재광 정현모 조경자
 조병주 최재욱 이수정 허성호 진은혜 허호범 박성실

감사헌금

하현철 김영순 이인태 김용진 박효선 신민철 이인웅 정선희 박호규
 강영님 김만균 노성희 문금석 권오진 이유일 김미희 안정자 무명9
 3여선교회

생일헌금

김극

녹색꿈헌금

김용규 송 명 오미경 이애리 정경례 최경미 최재욱 6여선교회
 무명4

장혜숙	백혜숙	박영희	조순덕
노순옥	박성희	김윤수	박성희
김재흥	최경미	임정자	이재문
장영숙	신영신	심	신영신
정경례	진정숙	정경례	조병주
박홍재	곽권희	김순복	김경수
권미숙	박미영	허정윤	박효선
이순정	김금순	이봉옥	강순배
이형숙	윤수진	이정은	윤수진
안홍숙	오현정	임영선	오현정
정영선	서정순	정영선	홍춘숙
박혜경	조향미	김영창	홍심상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신진식	곽상준		
장영숙	김세진		

야생 피조물의 평화

세상에 대한 절망이 마음속에 자라날 때
 나와 우리 아이들의 삶이 어찌될까 두려워
 한밤중 아주 작은 소리에 눈 뜨게 될 때
 나는 걸어가 몸을 누이네
 야생오리가 물 위에 자신의 아름다움을 내려놓은 그곳에
 큰 왜가리가 사는 그곳에
 나는 야생 피조물들의 평화 속으로 들어가네
 그들은 슬픔을 앞질러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괴롭히지 않는다네
 나는 고요한 물의 존재에게로 가네
 그리고 느낀다네
 내 머리 위로 낮엔 보이지 않던 별들이
 이제 반짝이려고 기다리고 있음을
 잠시 세상의 은총 속에 쉬고 나면 나는 자유로워지네

-웬델 베리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 자유에 이르는 길입니다. 열매 없는 삶의 길을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멍에를 부수고 참된 삶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뭔가에 짓눌린 듯한 삶을 살면서도 무엇 때문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짓누르던 멍에를 깨뜨려 주시고 참 자유를 얻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설교 : 이범석 목사	신앙의 요체 / 김기석 목사 기도 : 윤미경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주혜연 선생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방문성 장로	이진영 집사 하현철 권사

6	영접위원	방문성 박병구 박규석 강순배 정경례 박경선
	헌금위원	윤석철 김금순

비폭력적인 사람들은 행복하다

내가 예수회에 들어가기 몇 달 전인 1982년 여름, 나는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서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길을 걷고자 했다. ...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느님께 말씀드렸다.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당신께서는 제가 정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평화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심지어 저의 원수들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좋습니다. 저의 일생을 평화와 정의를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만일 저에게 징조를 보여주신다면 그리 하겠습니까.”

갑자기 귀청을 찢을 듯한 굉음이 들렸는데, 이스라엘 전투기 두 대가 음속을 돌파하면서 공중으로부터 갈릴래아 바다 위로 급강하더니 곧바로 나를 향해 돌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 전투기들은 내 머리 위를 지나 잠시 뒤 레바논 국경 근처를 폭격했다. 온몸을 떨면서 나는 하늘을 다시 올려다보았다. “하느님, 이제 됐습니다. 평화와 정의를 위해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징조를 보여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

나는 하느님의 비폭력의 영성에 대해 묵상하면서, 팔복이 드러내는 바와 우리 문화의 폭력의 영성과 극적인 대조에 놀라게 된다. 우리 문화의 반(反) 팔복은 첫째로, “부자는 행복하다. 이 세상의 나라는 그들의 것이다”라는 기본적 법칙으로부터 시작된다. 부자들이 세상을 다스린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고 결국 그들은 사라지고 만다. 물론 이것은 옛날부터 그랬다. 문화가 우리에게 집단 최면을 걸어 둔, 재물, 권력과 특권을 쫓아가도록 만들 때, 예수는 이 세상의 가치체계를 뒤집어엎고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의 경제학을 요구한다. ...

“다른 사람들을 슬퍼하게 만드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국가들은 선포한다. “죽이는 사람들, 죽이는 걸 지지하는 사람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죽이는 걸 위해 세금을 내는 사람들, 핵무기와 전쟁준비를 허용하는 사람

들은 행복하다”는 선언이다. ...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우리의 문화는 선언한다. “교만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들, 지배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선언이다. ...

“옳지 못한 일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의 체제는 말한다. 이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불의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그 불의를 지지하고 확장시키는 자들에게 속해 있다. 불의에 대한 그들의 욕망 때문에 그들은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이 세상은 주장한다. 희생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자들과 어린이들에게, 노인들에게, 노숙자들에게,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피난민들에게, 굶주린 사람들에게, 원수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라는 주장이다. ...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은 행복하다”고 군대 사령관들과 군목들은 선언한다. 군사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 무기를 위해 세금을 내는 사람들, 국방부에 기금을 내는 사람들,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 애국심을 부추기는 사람들, 총을 만드는 사람들, 구원은 폭력을 통해서 온다는 신화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선언이다. ...

끝으로 이 세상은 “정의를 위해 박해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한다. 안락하고 안전한 사람들, 사회적 변화를 위한 투쟁에 개입하지 않는 사람들,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에 대해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 구조적인 불의에 참여하고 기금을 대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한다. ...

산상수훈에서 예수는 비폭력의 길은 좁은 길로서 찾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멸망에 이르는 길은 넓어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가르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문화 속에 오신 예수는 비폭력의 하느님과 평생을 살리는 비폭력의 영성을 선언한다.